

투어 번호
LKEA9ZY24G

지속 가능한 투어 (10일)

10일 · 9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0일 투어는 스리랑카의 중부 고지대와 남부를 천천히 여행하며, 관광지 체크리스트보다는 섬의 살아있는 공예, 농업, 음식 전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캔디에서 출발하여 마을 황동 공예소와 중앙 고지대 사원들을 방문한 후, 롯말레와 누와라 엘리야로 향해 타디 채취, 자기 제조, 차 제조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엘라의 농장과 하이킹 코스를 거쳐 우다왈라웨의 야생동물과 갈레, 벤토타의 해안에 도달합니다.

전 일정 동안 개인 에어컨 차량과 기사 가이드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느긋한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장인, 농부, 차 일꾼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정 중에는 엘라에서의 채소 농장 방문과 요리 시연, 우다왈라웨 국립공원에서의 사파리, 갈레의 옛 네덜란드식 요새 산책이 있으며, 투어는 해안에서 마무리되고 공항으로 돌아갑니다.

중부 고지대와 남부를 통과하는 문화 체험 투어를 원하는 여행자에게 적합하며, 하이킹, 자전거 타기, 공예 및 음식 체험이 선택 사항이 아닌 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캔디

콜롬보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Lakpura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위생 키트를 전달하고 캔디까지 모십니다.



캔디

캔디로 이동하여 호텔에 체크인한 후 1박을 합니다.

A.Savin · FAL

Day 2 캔디 → 필리말라와 → 캔디

캔디에서 출발해 중부 고산지대로 들어가 전통 황동 공예와 짧은 농촌 길로 이어진 세 개의 유서 깊은 사원을 둘러보는 당일 여행입니다.

필리말라와 황동 공예

필리말라와의 한 마을 가정집을 방문하여 전통 황동 공예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엠베케, 랑카틸라케, 가달라데니야 사원

캔디 남서쪽에 위치한 이 세 사원은 약 7킬로미터의 길로 이어져 있으며, 비옥한 논과 색색의 집들이 모여 있는 작은 마을들을 지나갑니다. 가는 길에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길가 가판대에서 차를 한 잔 즐길 기회도 있습니다.

Day 3 캔디 → 코트말레 → 캔디

캔디에서 코트말레로 떠나는 당일 여행으로, 전통 농촌 생업인 야자수 토디 채취와 재거리(설탕) 제조 과정을 직접 살펴봅니다.

토디 채취

코코넛, 팔미라, 대추야자 등 야자나무 수액으로 만드는 알코올 음료 토디가 채취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채취자는 코코넛 껍질로 엮은 줄사다리를 이용해 나무에 오른 뒤, 아직 피지 않은 야자 꽃봉오리를 잘라 수액을 받아냅니다.

재거리 제조

사탕수수를 압착해 즙을 짜내고, 여과한 뒤 끓여 졸이고, 식혀서 금빛부터 진한 갈색까지 다양한 색의 덩어리로 굳히는 전통 비정제 설탕 재거리의 제조 과정을 지켜봅니다.

Day 4 캔디 → 누와라엘리야

누와라엘리야로 가는 길에 람보다 폭포에 잠시 들러 구경한 뒤, 영국 식민지 시절 산간 휴양 도시였던 이곳을 둘러볼 시간을 갖습니다.



람보다 폭포

람보다 엘라는 스리랑카에서 11번째로 높은 폭포로, 세 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 구간은 다리 근처 A5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으며, 상단 구간은 다리 바로 앞에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가야 더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Savin · FAL



누와라엘리야 시내 투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휴양 도시로 건설된 옛 영국 식민지 산간 마을을 자유롭게 걸어보는 선택 투어로, 오두막과 별장들, 오래된 붉은 벽돌 우체국을 둘러보고 빅토리아 여왕 공원이나 그레고리 호수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Abdul malik77 · CC BY-SA 4.0

Day 5 누와라엘리야

운영 중인 차(茶) 공장을 중심으로 누와라엘리야에서 보내는 하루입니다.

차 공장 방문

산비탈 다랑이에서 찻잎을 따는 채엽 인부들의 모습을 본 뒤, 발효, 압연, 건조, 절단, 체질, 등급 분류 과정을 다루는 공장 가이드 투어에 참여합니다. 방문은 티 테이스팅과 실론티가 왜 그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됩니다.

Day 6 누와라엘리야 → 엘라

여정은 엘라로 이어지며, 오후에는 농업과 음식을 주제로 한 시간을 보냅니다.

채소 농장 방문

엘라의 채소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이 재배되고 수확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요리 시연

현대적인 방식과 전통적인 방식을 결합한 요리 시연에 참여합니다. 모든 재료가 제공되며, 스리랑카 식사 또는 전통 간식을 만드는 과정을 배웁니다.

Day 7 엘라

엘라 주변의 전원 지대를 자전거와 도보로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어드벤처 사이클링

풀밭 평원과 시내, 폭포를 지나 논밭, 작은 차 농장, 향신료 농지를 거쳐 데모다라 나인 아치 다리까지 자전거로 달립니다.



리틀 아담스 피크

해돋이나 해질녘에 맞춰 리틀 아담스 피크를 등반하며 주변 전원 풍경을 감상합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Day 8 엘라 → 우다왈라와

우다왈라와로 이동하여 오후에 국립공원 사파리를 즐깁니다.



우다왈라와 국립공원 사파리

1970년대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의 습지, 숲, 초원을 가로지르는 3시간짜리 사파리입니다. 스리랑카 코끼리와 물새가 주요 볼거리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나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9 우다왈라와 → 갈레 → 벤토타

벤토타 해변으로 가는 길에 갈레에 들러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지를 둘러봅니다.



갈레 포트 시내 투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세운 요새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인 갈레 포트를 둘러봅니다. 해양박물관, 갈레 국립박물관, 등대를 포함하며 자갈길이 깔린 거리를 따라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10 갈레 →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BIA)

남부 해안에서 공항까지 이동하여 출국합니다.

출국

공항으로 이동하여 투어를 마무리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Arrival pickup and drop-off.
- Transport in an air-conditioned vehicle.
- Service of an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미포함

- Hotel Accomodation & Meals
- Any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Cost of Beverages
- International / Domestic Airfare.